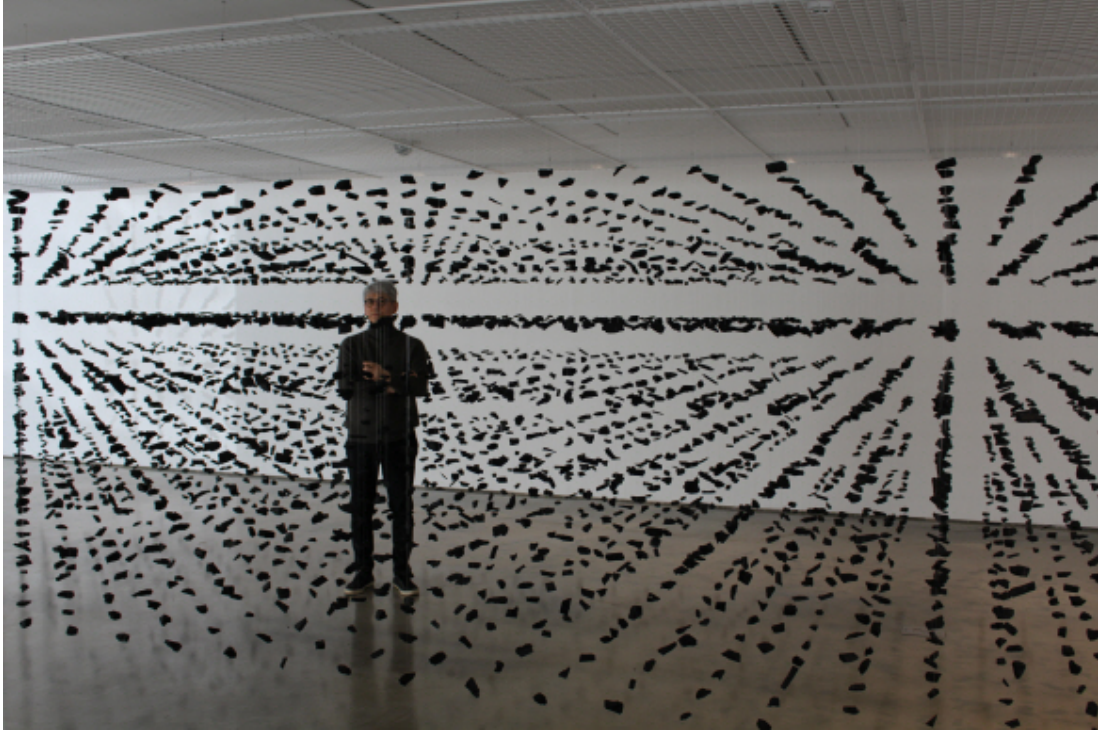


이데일리 기사 인쇄하기

수천개 숲과 수백개 거울파편으로 빛은 환상

입력시간 | 2016-03-15 06:15



박선기 작가가 숲으로 거대한 숲을 만든 설치작품 '언 어그리게이션-스페이스' 안에 섰다(사진=313아트프로젝트).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숲을 이용한 조각으로 이름을 알려온 설치작가 박선기(51)가 개인전 '리플렉션-색즉시공'을 연다. 오는 4월 8일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313아트프로젝트에서 여는 전시에선 숲, 아크릴, 크리스털 비즈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든 작은 조각을 공중에 매단 작품으로 관객과 공간 사이의 완전한 균형을 의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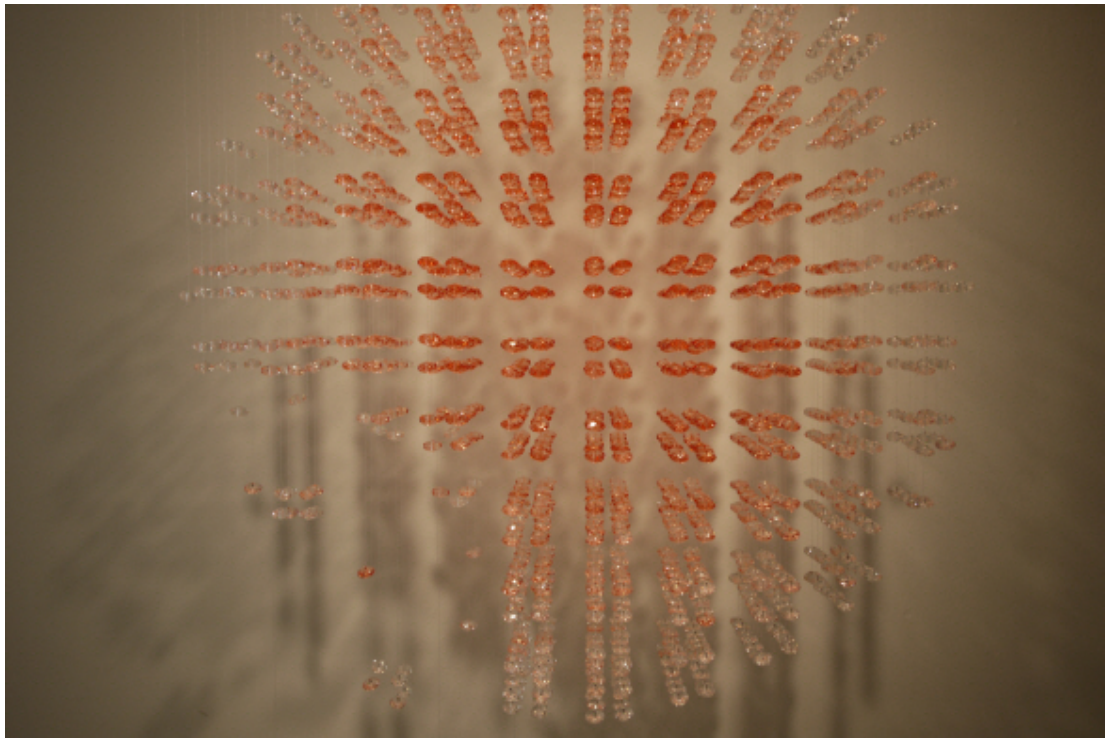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형태(shape)와 상(image)에 내재한 존재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 전시의 대표적인 작품은 전시장 1층 전면에 설치한, 수백개의 거울조각으로 만든 '언 어그리게이션-리플렉션'이다. 거울을 불규칙한 방식으로 깨뜨려 수많은 크기가 다른 조각으로 만든 작품은 뒷면을 각각 다르게 채색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특히 전면 창으로 통해 들어온 자연광으로 지나가는 사람의 발길을 잡아끌 정도로 찬란한 빛을 선사한다. 마치 큰 거울을 깨뜨리는 퍼포먼스로 작업하는 이탈리아 작가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를 떠올리게 한다. 작가가 숲과 크리스털비즈가 아닌 거울 파편으로 만든 작품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부로 들어가면 숲조각으로 만든 거대한 설치작품 '언 어그리게이션-스페이스'가 거대한 숲과 같은 세계로 이

끈다. 관객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뻗어나가 달아놓은 숲 사이로 지나가면서 작품 속에 직접 들어가 작품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마치 숲길을 산책하듯이 ‘숲길’을 걸으면서 작품과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전시장에서 만난 작가는 “숲은 내가 오랜 기간 사용해온 재료”라며 “생성과 소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의 이치를 함축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소재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시장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과 2층에선 굴절률이 서로 다른 유리를 사용해 빛의 전반사를 유도하는 특징을 가진 광섬유를 이용한 작품 ‘언 어그리게이션-라이트’, 또 크리스탈비즈로 만든 다양한 ‘어그리게이션’ 시리즈를 볼 수 있다. 작가는 이들 작품에 대해 “빛을 흡수하지 못하고 투과하는 아크릴과 크리스탈비즈 등을 의도적으로 조합해 조명의 농도와 결정체의 밀도를 달리했다”며 “여기에 자연광과 주변공기 등이 어우러져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관객에게 복합감각의 자연스러운 발현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 본연에 내재한 여러 심리적·무의식적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 작품을 설치하며 국내에 소개됐지만 작가는 주로 이탈리아에서 활동해왔다. 이탈리아 건축양식에서 영감을 받은 계단·기둥·아치와 같은 건축의 부분적인 요소를 다양한 재료와 결합해 표현하는 작업을 해왔다. 02-3446-3137.



박선기의 ‘언 어그리게이션’(사진=313아트프로젝트).



박선기의 '언 어그리게이션-리플렉션'(사진=313아트프로젝트).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